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정보행태 분석*

Analysis of User Information Behavior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이 종 욱 (Jongwook Lee)**
박 성 재 (Sungjae Park)***
최 재 황 (Jae-Hwang Choi)****

초 록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이용자 직업 유형별(공직자, 연구원, 사서) 정책정보 이용행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책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1명이 설문응답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일반도서 등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자료 입수를 위해 주로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나이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및 경로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서비스 표적 집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n effort to vitaliz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POINT)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authors examined information behavior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 use behavior of policy information users and checked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information behavior by participants' occupations (public officials, researchers, and librarians). We carried out an online survey and collected 331 completed survey responses. Overall,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material was research report, followed by journal article and monograph, etc. The participants frequently used search engines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s to acquire policy information. Also, 47.7% of the participants were aware of and had usage experience of POINT. Furthermore,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aspects of policy information behavior and in perceptions toward POINT across participants' occup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needs to improve their services based on a better understanding on target users.

키워드: 정책정보,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Use Behavior,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Policy Information Services

* 이 논문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국립세종도서관 201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ongwook@knu.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spark@hansung.ac.kr)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9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9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111-128,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3.111>

1. 서론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과정(policy process)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국민이 정책에 대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칭한다(최재황 2009).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정책정보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 즉, 정부 부처 발행 모든 자료(정부간행물, 정책홍보자료 등), 정책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자가 발간한 자료(연구논문, 보고서 등), 정책정보 관련 웹 문서(정부부처 웹사이트, 정책정보 생산 기관 웹사이트 등), 정책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정책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처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로 구분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7).

정책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책정보는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책정보가 있더라도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체계가 없으면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윤희운, 오선경, 성정희 2016).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는 시스템 및 자료의 중복, 체계적인 관리 부족, 전문적 서비스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영희, 심재운 2014; 최재황 2009).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는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POLicy INformaTion), 행정안전부의 프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데이터포털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노영희, 박양하 2014).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정부 부처, 정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기능에 필요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윤희운, 장덕현 2016).

그렇지만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낮은 상황이다(윤희운, 오선경, 성정희 2016). 그 이유로는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모호성”,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부족한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현실적 불가피성”, “짧은 역사와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지역 여론의 기대” 등이 있다(윤희운, 장덕현 2016, 198). 그리고 노영희와 심재운(2014)은 정책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체계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전략적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으며(윤희운, 장덕현 2016),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곽승진 외 2011) 및 신규 서비스 요소(노영희, 곽승진, 김정아 2015; 노영희, 박양하 2014)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 정보이용행태 분석(노영희, 심재운 2014; 윤희운, 오선경, 성정희 2016)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정책정보를 비롯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문 편이며, 이용자의 직업 유형(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보 이용행태의 차이점을 밝힌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특히 이용자의 서로 다른 직업 유형은 상이한 역할을 부여하므로 이들의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직업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국립세종도서관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연구

윤희운, 오선경, 성정희(2016)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이해관계자 즉, 정부부처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세종시민, 세종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이해집단에서 세종도서관을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해집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과 시설, 대출·열람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를 식별하였으며, 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책정보의 필요성, 용도, 이용률, 입수처 및 입수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전략적 및 중점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자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노영희와 심재운(2014)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하여 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산하 국책연구소 52개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설문 응답 115부를 토대로 정책정보 이용현황, 활용정도,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설문 응답자들은 연구과제 수행이나 정책동향 파악을 위해 정책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가 빈번하였다. 또한 인쇄자료에 비해 전자자료 이용을 선호하였고, 5년 이내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주 이용하는 정보원의 유형은 Web DB였다. 다만 국내 정책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정보 입수에 있어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등)을 이용한 검색이 일반적이었다.

2.2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관련 연구

국립세종도서관의 운영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박승진 외(2011)는 실무자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 도서관의 경영환경 및 SWOT 분석을 수행하였고,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정보서비스 기본모형(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윤희운과 장덕현(2016)은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 국립세종도서관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적 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세종도서관의 주요 업무 및 핵심기능을 설정하였으며, 조직과 인력구성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신규 서비스 모형을 제

안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노영희, 광승진, 강정아(2015)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정책정보 수요자 및 정책정보 멘토의 자문에 기반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해당 운영모형은 인적 구성요소(멘토, 멘티, 결연관리자, 슈퍼바이저 등)와 내용적 구성요소(주제분야, 프로그램 구성요소, 세부 활동 내용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영희 외(2015)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소 자료실 소속 전문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정보 제공서비스의 양·질적 수준 제고, 공문 및 홍보를 통한 멘토/멘티 모집, 전문가 멘토 위촉, 운영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노영희와 박양하(2014)는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 개발 및 정보원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웹사이트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자료 유형을 결정하고, 자료 유형별 메타필드를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실험적 구축을 시도하여 콘텐츠 구축 시 애로사항을 식별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체성 도모를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 즉, 정책정보 이용수준, 입수경로, 국내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활용도는 어떠한가?
- 2) 정책정보 이용자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즉,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이용경험 및 경로는 어떠한가?
- 3) 정책정보 이용자의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보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는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해 공직자(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연구원, 사서를 포함한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여부, 이용도 및 유용도, 이용행태도 분석하였다. 단, 이 논문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 인식 평가,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요소에 대한 결과 기술을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후속 논문에서 다룰 계획이다.

3.2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을 위해 서베이몽키(ko.surveymonkey.com)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개발하였으며, 설문 문항 구성에 있어 관련 선행연구(노영희, 심재운 2014;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를 참고하였다.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총 5개 항목, 총 24문항(인구통계학적 특성, 정

〈표 1〉 설문지 구성 및 문항 수

구분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계
1장	응답자 배경정보	성별, 연령, 직업, 담당 업무 경력, 소속부처/기관, 담당 업무, 관련 주제 분야	7	24
2장	정책정보 이용행태	정책정보 이용수준, 정책정보 입수경로, 국내·외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활용도 및 주요특징 분석	6	
3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비이용 이유, 향후 이용의향 분석	3	
4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	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11가지) 이용도 및 유용도 평가	2	
5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최근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이용경로, 입수 정보 활용방법	3	
6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정보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요소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 서비스 의견	1	
7장	마무리	면담 참여의향, 면담요청 연락처	2	

*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의 4장과 6장에 해당하는 결과는 연구범위 상 제외하였음

책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활용도 파악 및 유용성 평가, 면담참여 의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건너뛰기 기능을 적용하여, 개별 응답자가 응답하는 설문 문항의 수는 최소 17개부터 최대 24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제시되는 문항이 다르도록 구성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대상은 정책정보 이용자이며,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대상자(8,800명),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회원 가입 시 메일 수신 동의 회원(3,500명)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9,416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초대장을 발송하

였다. 특히 개별 이메일을 통한 설문초대장 발송 외에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202개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정책정보포털에도 팝업창을 통해 설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설문초대장은 15일과 22일에 각 1회씩 총 2회 발송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422명이었으나 부분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31명의 응답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응답자 배경정보, 정책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응답자의 직업 유형(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책정보 이용행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의 4.2에서는 모든 응답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종합하여 기술하였으며, 4.3에서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정보이용 행태의 차이를 서술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139명(42.0%)이었으며, 여성이 192명(58.0%)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표 2〉 참조). 또한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155명(4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94명(28.4%), 20대(15.7%), 50대 28명(8.5%)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공직자(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189명(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원 78명(23.6%), 사서 56명(16.9%), 기타 8명(2.4%)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134명(40.5%)은 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었으며, 67명(20.2%)은 5년 이상 10년 미만, 49명(14.8%)은 1년 미만, 43명(13.0%)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등이었다.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부처의 수는 약 130여개(각종 정부 부처, 연구원, 시청, 교육청, 대법원, 대검찰청 등 포함)로 파악되었다.

4.2 응답자 정책정보 이용행태

4.2.1 정책정보 이용수준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은 연구보고서이며, 다음으로 학술(연구)논문, 일간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통계자료, 법령

〈표 2〉 응답자 주요 배경정보(N=331)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9	42.0
	여성	192	58.0
연령	20대	52	15.7
	30대	155	46.8
	40대	94	28.4
	50대	28	8.5
	60대 이상	2	0.6
직업	공직자	189	57.1
	연구원	78	23.6
	사서	56	16.9
	기타(공무원 퇴직자, 인턴 등)	8	2.4
담당 업무 경력	1년 미만	49	14.8
	1년 이상 - 5년 미만	134	40.5
	5년 이상 - 10년 미만	67	20.2
	10년 이상 - 15년 미만	43	1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9	2.7
	20년 이상	29	8.8

〈표 3〉 정책정보 이용수준(N = 331)

유형	평균 [†]	표준편차	이용빈도 순위
연구보고서	3.63	1.04	1
학술(연구)논문	3.58	1.07	2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54	0.95	3
통계자료	3.52	1.01	4
법령자료	3.50	1.11	5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등)	3.35	1.13	6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 계획, 발전계획 등)	3.29	1.04	7
동향보고서	3.25	1.01	8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3.16	1.04	9
기타 관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3.14	1.06	10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3.10	0.98	11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3.03	0.99	12
예·결산자료	2.83	1.06	13
국의 정부기관 발간자료(정부간행물 등)	2.83	1.04	13
국제기구 발간자료	2.79	1.03	15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자주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 매우 자주 이용

자료, Web DB, 사업계획자료, 동향보고서 등의 순이었다(〈표 3〉 참조). 한편 예·결산자료,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에 대한 이용수준은 평균값이 3.0 이하 즉,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4.2.2 정책정보 이용경로

정책정보 입수를 위해 일반 검색포털(네이버, 구글 등)을 활용하는 경우(206명, 62.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165명, 49.8%), 본인/사무실 소장자료(155명, 46.8%),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113명, 34.1%), 학회/세미나/전시회(108명, 32.6%),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87명, 26.3%), 국립세종도서관(62명, 18.7%)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동료집단(57명, 17.2%), 관련 전문가(56명, 16.9%), SNS 서비스(20명,

6%), 출판사 및 서점(20명, 6%), 기타(해외 정부사이트, 국회도서관, 해외 컨설팅 업체로부터 구매 등)(8명, 2.4%)가 있었다.

4.2.3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응답자가 인식하는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유용도를 조사한 결과(〈표 4〉 참조), 행정안전부의 프리즘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POINT)의 순이었다. 그러나 프리즘이나 POINT의 유용도 평균값은 각각 2.78, 2.72에 불과하여,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유용도 인식은 보통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신뢰성(197명, 59.5%), 정확성(172명, 52.0%), 편의성(160명, 48.3%), 최신성(148명, 44.7%), 전문성(132명,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용한

〈표 4〉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N=331)

유형	평균 [†]	표준편차	'잘 모름' (%)	유용도 순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2.78	1.65	21.8	1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포인트(POINT)	2.72	1.64	22.1	2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2.66	1.63	22.1	3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2.61	1.58	21.1	4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52	1.61	23.0	5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17	1.64	31.4	6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2.11	1.56	31.4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1.87	1.63	38.7	8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1.60	1.56	44.7	9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1.59	1.57	44.4	1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SFAC)	1.41	1.51	48.6	11

† 1=전혀 유용하지 않음, 2=유용하지 않음, 3=보통, 4=유용, 5=매우 유용

정책정보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비스는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신성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함을 제시한다.

4.2.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5〉 참조), 전체 응답자(N=331)의 158명(47.7%)은 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116명(35.0%)은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57명(17.2%)은 “잘 모름”으로 응답하여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는 응답자(N=116)를 대상으로 비이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 방법을 모름”(52명, 44.8%),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47명, 40.5%), “이용할 시간이 없음”(32명, 27.6%), “자료의 부족”(7명, 6%), “기타”(6명, 5.2%)의 순이었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함”,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더 익숙함”,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름”, “신속하게 회신을 하는지 의문임” 등을 언급하였다.

〈표 5〉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N=331)

인지 및 이용 여부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	158	47.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	116	35.0
잘 모름	57	17.2
합계	331	100

한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N=57) 가운데 50명(87.7%)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2명, 38.6%) 또는 “그렇다”(28명, 49.1%)를 응답하여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응답자는 “보통이다”(5명, 8.8%)와 “그렇지 않다”(2명, 3.5%)를 응답하였다.

4.2.5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및 경로

서비스 이용자(N=158)들이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로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126명, 79.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45명, 28.5%), 정책동향 정보제공(42명, 26.6%),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26명, 16.5%),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21명, 13.3%) 등의 순이었다(<표 6> 참조). 반면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정책

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응답자의 10% 미만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N=158)(복수응답)로는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72명, 45.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홍보자료(63명, 39.9%), 사서의 추천 및 학회, 워크숍, 세미나(각 21명, 13.3%) 등의 순이었다. 기타 경로(14명, 8.9%)에는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 기관방문 홍보행사, 프로젝트 참여, 소속기관 이용자 요청 등이 언급되었다.

끝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활용방식(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4명, 40.5%), 다음으로 정책의제 설정(40명, 25.3%), 정책집행(34명, 21.5%), 기타(33명, 20.9%), 정책평가(17명, 10.8%), 정책채택(8명,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활용방식으로는 연구지원, 자료제공, 동향파악, 업무 참고 등이 언급되었다.

<표 6> 최근 6개월 이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험(N=158) (복수응답)

서비스 유형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126	79.7
정책동향 정보제공	42	26.6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28	17.7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11	7.0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45	28.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13	8.2
기관 대출 서비스	19	12.0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26	16.5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4	8.9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21	13.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18	11.4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 없음	9	5.7

4.3 응답자 직업유형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4.3.1 정책정보 이용수준

응답자의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책정보 유형의 이용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정책정보 이용수준은 연구원(M=3.44, SD=0.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서(M=3.24, SD=0.94), 공직자(M=3.16, SD=1.05)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수준을 비교한 결과, 15가지 정책정보 유형 가운데 10가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1> 참조). 즉, 사서는 공직자에 비해 일반도서와 Web DB의 이용도가 높았으며, 연구

원은 공직자 또는 사서에 비해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학술(연구)논문, Web DB, 국제기구 발간자료,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를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 유형의 이용순위를 살펴본 결과(<표 7-2> 참조), 공직자의 경우 법령자료, 통계자료, 일반도서, 연구보고서 등의 순으로 정보를 이용한 반면, 연구원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Web DB, 통계자료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사서는 일반도서, Web DB,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순으로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1>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유형 이용수준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F	사후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46	1.02	3.56	0.78	3.84	0.89	3.744*	사서>공직자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3.03	0.98	3.06	1.07	3.04	0.89	.040	-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3.13	1.06	3.26	1.06	3.18	0.92	.397	-
통계자료	3.47	0.99	3.83	1.03	3.30	0.91	5.495*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법령자료	3.63	1.13	3.38	1.15	3.25	0.90	3.310*	-
연구보고서	3.43	0.99	4.24	0.86	3.54	1.08	23.364*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학술(연구)논문	3.35	1.03	4.26	0.86	3.50	1.04	23.181*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 계획, 발전계획 등)	3.23	1.12	3.36	0.91	3.45	0.95	1.064	-
예결산자료	2.95	1.13	2.54	0.96	2.86	0.90	4.165*	공직자>연구원
동향보고서	3.22	1.02	3.41	1.01	3.11	0.91	1.651	-
Web DB	3.01	1.06	4.00	0.98	3.70	1.06	28.464*	연구원>공직자 사서>공직자
국제기구 발간자료	2.67	1.01	3.26	1.05	2.68	0.92	10.099*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	2.74	1.04	3.13	1.07	2.80	0.88	4.100*	연구원>공직자
기타 관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3.14	1.06	3.03	1.14	3.25	0.92	.747	-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2.98	1.04	3.32	0.89	3.14	0.86	3.368*	연구원>공직자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자주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 매우 자주 이용

〈표 7-2〉 직업별 정책정보 유형 이용순위(상위 5위)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법령자료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2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Web DB
3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Web DB	연구보고서
4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연구)논문
5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계획, 발전계획 등)

4.3.2 정책정보 이용경로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경로를 비교한 결과(〈표 8〉 참조), 직업과 상관없이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를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반 포털 사이트나 정책정보 사이트와 같은 주요 이용경로는 제외하고는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원은 공직자나 사서에 비해 학회, 세미나, 전시회 등

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서는 타 직업 이용자에 비해 소속기관 도서관이나 지식정보실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정책정보 입수를 위해 국립세종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사서 21.4%, 공직자 20.6%, 연구원 11.5%로 나타났다.

4.3.3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응답자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11가지 서비스가

〈표 8〉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경로(복수응답)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93	49.2	3	31	39.7	4	28	50.0	2
동료집단	37	19.6	9	13	16.7	8	7	12.5	8
국립세종도서관	39	20.6	7	9	11.5	9	12	21.4	6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52	27.5	5	31	39.7	4	26	46.4	4
관련 전문가	39	20.6	7	15	19.2	7	2	3.6	11
학회, 세미나, 전시회	59	31.2	4	37	47.4	2	12	21.4	6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95	50.3	2	37	47.4	2	28	50.0	2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118	62.4	1	50	64.1	1	33	58.9	1
SNS 서비스	13	6.9	10	2	2.6	12	4	7.1	10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2	22.2	6	19	24.4	6	25	44.6	5
출판사 및 서점	8	4.2	11	5	6.4	11	7	12.5	8
기타	1	0.5	12	6	7.8	10	1	1.8	12

〈표 9〉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포인트(POINT)	2.78	1.60	2.23	1.69	3.27	1.46	7.196*	사서>공직자> 연구원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2.76	1.60	2.88	1.76	2.71	1.66	.220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2.56	1.61	2.27	1.70	3.18	1.16	7.97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6	1.60	1.85	1.64	3.04	1.26	11.565*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2.58	1.66	2.55	1.69	3.18	1.28	4.652*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07	1.61	2.24	1.83	2.48	1.40	1.727	-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2.01	1.60	1.86	1.56	2.73	1.21	8.455*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1.63	1.60	2.04	1.68	2.38	1.53	5.214*	사서>공직자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관	1.58	1.60	1.19	1.46	2.18	1.40	7.78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1.57	1.60	1.31	1.57	2.00	1.44	3.519*	사서>연구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	1.44	1.60	1.00	1.27	1.79	1.50	5.649*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운데 9가지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9〉 참조). 특히 사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공직자나 연구원에 비해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는 연구원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를 더욱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직업별 유용도 인식 순위를 살펴보면, 공직자와 사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프리즘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분석하였으며(〈표

10〉 참조), 그 결과, 공직자는 신뢰성과 편의성, 연구원은 정확성과 신뢰성, 사서는 편의성 및 전문성을 특히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서의 58.9%, 공직자의 50.3%, 연구원의 37.2%가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표 11〉 참조). 반면 모든 이용자 유형에서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를 넘었으며, 연구원의 26.9% 공직자의 15.9% 사서의 8.9%는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10〉 직업별 유용도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신뢰성	123	65.1	1	45	57.7	2	26	46.4	3
정확성	89	47.1	3	53	67.9	1	24	42.9	4
최신성	81	42.9	4	42	53.8	3	22	39.3	5
편의성	98	51.9	2	30	38.5	5	30	53.6	1
전문성	71	37.6	5	33	42.3	4	27	48.2	2
기타	1	0.5	6	1	1.3	6	2	3.6	6

〈표 11〉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	95	50.3	29	37.2	33	58.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	64	33.9	28	35.9	18	32.1
잘 모름	30	15.9	21	26.9	5	8.9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비이용 이유(N=110)를 조사한 결과(〈표 12〉 참조), 공직자와 연구원 집단에서는 “이용 방법을 모름”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서 집단에서는 “이용할 시간이 없음”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4.3.5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및 경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경험(최근 6개월 이내)을 응답자 직업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13〉 참조), 공직자의 84.2%, 연구원의 79.3%, 사서의 66.7%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가장 빈번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2〉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비이용 이유(N=110) (복수응답)

구분	공직자(N=64)		연구원(N=28)		사서(N=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 방법을 모름	31	48.4	16	57.1	4	22.2
이용할 시간이 없음	19	29.7	3	10.7	8	44.4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21	32.8	15	53.6	8	44.4
자료의 부족	2	3.1	3	10.7	1	5.6
기타	4	6.3	2	7.1	0	0

〈표 13〉 최근 6개월 이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험(N=157) (복수응답)

구분	공직자(N=95)		연구원(N=29)		사서(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80	84.2	23	79.3	22	66.7
정책동향 정보제공	24	25.3	8	27.6	10	30.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G-Zone 서비스)	13	13.7	4	13.8	10	30.0
국의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6	6.3	1	3.4	4	12.1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22	23.2	6	20.7	16	48.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6	6.3	3	10.3	4	12.1
기관 대출 서비스	11	11.6	3	10.3	5	15.2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18	18.9	6	20.7	2	6.1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7	7.4	2	6.9	5	15.2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6	16.8	2	6.9	3	9.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4	4.2	3	10.3	11	33.3
없음	5	5.3	1	3.4	3	9.1

〈표 14〉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로(N=157)

구분	공직자(N=95)		연구원(N=29)		사서(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서의 추천	11	11.6	4	13.8	6	18.2
동료의 추천	10	10.5	1	3.4	6	3.0
홍보자료	43	45.3	10	34.5	10	30.3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46	48.4	15	51.7	10	30.3
학회, 워크숍, 세미나	8	8.4	1	3.4	12	36.4
기타	7	7.4	4	13.8	3	9.1

그리고 공직자의 25.3%와 연구원의 27.6%는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이용을 하였다. 반면 사서의 경우,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다음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의 응답자 직업별 분석결과, 공직자와 연구원은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과 “홍보자료”를 통해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사서는

“학회,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이용하게 된 계기가 가장 많았다(〈표 14〉 참조).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즉, 이는 국립세종도서관

관 정책정보서비스 이해관계자 가운데 이용자 관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일반도서, 통계자료, 법령자료 등이며, 이러한 자료 입수를 위해 주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포털 사이트와 프리즘이나 정책브리핑과 같은 정책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가운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프리즘과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에 대한 유용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더하여 유용성이 높은 정책정보서비스는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신성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이 있었으나 35%는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비이용 이유는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이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이는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신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로는 자료검색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홍보자료, 사서의 추천 등의 순이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홍보 또는 타 서비스와의 연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 직업 유형별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정보이용 빈도는

연구원, 사서, 공직자 순으로 높았다.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에 있어 공직자는 법령자료, 통계자료, 일반도서 등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반면, 연구원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Web DB 등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고, 사서는 일반도서, Web DB, 연구보고서 등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직업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정책정보 이용경로는 직업과 상관없이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 사이트 활용이 가장 빈번하였다. 나아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사서가 공직자나 연구원에 비해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유용도가 높은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신뢰성, 연구원은 정확성, 사서는 편의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공직자의 50.3%, 연구원의 37.2%, 사서의 58.9%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이용자의 직업에 따라 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로는 모든 직업 유형에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나 사서 이용자는 타 직업군 이용자에 비해 종합목록 서비스와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특히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서의 역할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선행연구(노영희, 심재운 2014; 윤희운, 오선경, 성정희 2016)에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

자의 인식이나 정보이용 행태를 조사한 적이 있으나 주요 이용자(공직자, 연구원, 사서)의 직업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 직업 유형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정책정보 이용행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서비스 이용자 타깃 즉,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현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표적 집단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표적 집단을 공직자로 설정한다면, 법령자료나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 제고, 홍보나 교육을 통한 비이용자의 이용자 전환, 검색포털 및 행정 업무망과의 연계 등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서비스 표적 집단이 공직자, 연구원, 사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용자 유형

에 따라 이용 권한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용도 인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용도 인식이 가장 높은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 프리즘과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도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각 2.78점, 2.72점으로 나타나 유용도가 보통 이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 연구에 기초한 서비스 체계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브와 포털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표적 집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이응봉, 장덕현, 배경재, 김정택. 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2(3): 311-330.
- 국립중앙도서관. 2007.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노영희, 곽승진, 강정아, 정은지, 심재윤. 201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83-114.
- 노영희, 곽승진, 강정아. 201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47-278.
- 노영희, 박양하. 2014. 정책분야 주제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63-92.

- 노영희, 심재윤. 2014. 정책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요구자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37-168.
- 윤희운, 오선경, 성정희. 2016.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이해집단의 인식조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7(4): 19-42.
- 윤희운, 장덕현. 2016. 국가도서관 지역분관의 발전전략 모형 연구: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197-213.
- 최재황. 2009.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협력망 구축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97-114.
- Leckie, Gloria J., Karen E. Pettigrew, and Christian Sylvain.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Library Quarterly*, 66(2): 161-1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ae-Hwang. 2009. "A Study on Cooperative Library Network Program for Government's Policy Information Portal at National Digital Library in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2(1): 97-114.
- Kwak, Seung-Jin, Eung-Bong Lee, Durk-Hyun Chang, Kyung-Jae Bae, and Jeong-Taek Kim.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National Library for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Sejo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11-330.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7. *A Study 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s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Younghee and Jae-Yun Sim. 2014. "A Study on Policy Researchers' Requirements for Policy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137-168.
- Noh, Younghee and Yang-Ha Park. 2014.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Areas Subject Gu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63-92.
- Noh, Younghee, Seung-Jin Kwak, and Jung-Ah Kang. 2015. "A Study on Developing a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Management Model: Focusing on National Sejong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47-278.
- Noh, Younghee, Seung-Jin Kwak, Jung-Ah Kang, Eun-Ji Jung, and Jae-Yun Sim. 2015. "A

- Study on the Demand for and Creation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83-114.
- Yoon, Hee-Yoon and Durk Hyun Chang. 2016. “A Pilot Study on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a National Branch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2): 197-213.
- Yoon, Hee-Yoon, Seong-Kyung Oh, and Jung-Hee Sung. 2016.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 abou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9-42.